

## 뒤의 뒤에, 가까스로,

신해욱

한꺼번에 다섯 개의 단어를 적고 싶다. 한꺼번에 세 개의 문장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어지럽게 엉겨있는 마음의 풍경을 가다가다 풀어놓을 수 없을 때. 꿈의 잔상이 종잡을 수 없이 머릿속을 떠다닐 때. 한 번에 하나의 단어만을 써야 해서 답답하다. 한 문장을 끝내고서야 다음 문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언어의 질서가 못내 아쉽다. 이 질서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욕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 사이에서 뒤뚱거리며, 글을 쓴다.

쓸 때만 그런 건 아니다. 차미혜의 <무인칭을 위한 노래>. 8분 45초. 이 작품이 설치된 방 안에서 한 시간 쯤 보냈다. 두 겹의 풍경. 두 겹의 시간. 두 겹의 속삭임. 두 겹의 언어. 겹겹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내 감각은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두 개의 귀를 가졌지만 두 가지의 소리를 동시에 또렷이 들을 수 없듯, 두 개의 눈을 가졌지만 전경과 후경을 함께 응시할 수 없듯, 한 번에 하나씩을 향해서만 나는 감각의 회로를 열 수 있었다. 한 번은 스크린을 흐르는 이미지에. 한 번은 스크린에 뜨는 텍스트에. 한 번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에. 그렇게 한 번, 한 번, 또 한 번, 풍경 속에 고인 시간과 그 시간에 살짝 엮힌 흐릿한 이야기를 만나고 있다 보니, 문득 어떤 노래가 다가왔다. 일종의 푸가 형식을 띤, 들리지 않는 노래. 여자와 남자를, "비희"와 "남우"를, 비와 나무를, 나무와 숲을, 숲과 바람을, 바람과 나비를, 낮게 점점 더 낮게 가청권 아래의 음역으로 데려가는 노래. "없을 수 있었던 하루"와 "모를 수 있었던 얼굴"의 노래. 무인칭을 위한 노래. 그럴 것이다. 무인칭의 노래가 아닌 무인칭을 위한 노래.

아직은 남아있는 인칭의 흔적들.

아직은 가까스로  
있는 것들.

가까스로 드러나는  
"뒷모습의 뒷모습"들.

뒷모습의 뒷모습은 앞모습이 아니다. 뒤의 뒤도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 불안하다. 저기 숲이 있다. 여기 비가 온다. 차미혜의 카메라는 숲 대신 비를 본다. 그 빗방울들이, 아이러니한 투명함으로 앞을 가리고 숲을 흐린다. 나는 뒤의 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응시한다.

뒤의 뒤에서 발생하는 아슬아슬한 변이들.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최저 임계치의 빛 속에서 간신히 윤곽을 드러낸 것들이 스르르 움직인다. 저것은 사물인가 생물인가. 마루에 떨어진 햇빛은 조금씩 자리를 바꾸다가, 쏟아진 우유처럼 희고 탁하게 도드라진다. 이것은 정녕 빛인가. 아니면 색인가. 꿈속에서는 얼굴이 난무한다. 이것은 있는 얼굴인가 없는 얼굴인가. '주소 없는 집'에는 말라 죽은 넝쿨이 맥락을 잃고 있다. 여기는 안인가 밖인가. 액자를 넘어 이 집에 들어서면, 뒤의 뒤를

살게 될 것만 같다. 아니. 뒤의 뒤를 '앞게' 될까.

뒤의 뒤를 살게 된다면  
한꺼번에 다섯 개의 단어를 적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뒤의 뒤를 앞게 된다면  
한꺼번에 세 개의 문장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듣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그 노래,  
무인칭을 위한 노래가 아닌 무인칭의 노래를.